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43p, 중고선가치수 158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43p(+1p, WoW), 중고선가치수는 158p(+2p, WoW)를 기록함. 지난주 삼성중공업이 174,000CBM LNG운반선을 수주함. 인도기한은 2024년임. Seaspan이 7,000TEU 컨테이너선을 Zhoushan Changhong에 5+10척 발주함. (Clarksons)

Capesize bulker spot rates exceed \$35,000 per day as Vale lowers guidance

2.5개월만에 Capesize bulker 스팟운임이 35,000달러/일을 초과함. 중국의 견조한 철광석 및 발전용 석탄 수요가 Capesize 운임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비정상을 즐기는 '컨'선사들

컨테이너선 공급사들의 병목현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운임시장의 강세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도됨. 아시마미 서안 항로 운임은 18,345달러/FEU로 전년대비 약 6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Bihar quietly boosts LR2 order at New Times to four ships

사우디 Bihar International은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에 옵션을 행사하여 LR2 총 4척을 발주함. 기존 계약 선가는 4,700-4,800만달러였고, 이번 옵션분은 5,100만달러, 납기는 내년으로 보도됨. (Tradewinds)

Al Shaheen expansion: PTSC lands key Gallaf offshore contract from Qatar's NOC

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s Corporation(PTSC)가 카타르 North Oil Company의 대규모 Gallaf 프로젝트의 3차 EPCI를 수주함. (Upstream)

US watchdog seeks broader powers to drive liner competition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주 회의에서 선사들에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화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Tradewinds)